

건축비전2020과 디자인 리뉴얼

-제14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Architectural Vision 2020 and Design renewal



신경선 / 정회원,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
by Shin, Kyung-sun, KIRA

약력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기획디자인학과 재학
-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심의위원
- 서울산업대학교 최고위 건축개발과정 겸임교수

feature

“따르릉~!! 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분 잤습니다!!”
 화들짝 놀라 깨어보니 아침 7시! 전날 새벽녘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 들어와 잠시 눈을 붙였는데 한동안 잠 못 잤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우스꽝스러운 알람시계 꿈 덕분에 깨어났다. 오전 10시에 안국동 공간사옥에서 여성위원들을 만나기로 했던 터라 서둘러야 시간에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뭉기뭉기 굶뵤이를 떠는 아들 녀석을 재촉해 등떠밀어서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집을 쫓다. 평소엔 지하철을 잘 타지 않아 정거장을 놓칠까봐 걱정하면서도 사이사이 밀려오는 잠의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다크 씨클을 달고 안국역의 출구를 향해 뛰어 올라갔다.

9시45분! 다행히 늦지 않았다는 안도의 숨을 쉬며 공간사옥 입구에 도착하고 보니 아직 아무도 도착해 있지 않았다. “에이~ 좀더 자고 올걸!” 하고 후회하면서 나지막한 공간사랑 화단에 앉아 기다리다보니, 참 서늘하고 향기로운 5월의 아침이었다.

야외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청명한 하늘이었다.
 행사는 1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 임원들이 먼저 와서 행사준비를 챙기기로 했었다. 요사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번 전국대회 행사준비를 거의 돕지 못해서 염치없고 다른 위원들에게 미안했다. 곧 류행희 위원, 막내 오미나씨, 황정복 부회장님 순으로 하나둘씩 위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행사준비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다.
 역시, 집이 먼 사람이 제일 일찍 도착한다는 원칙을 깨지 않고 대구지역의 회원들이 김화자 이사님을 선두로 일차으로 도착했고 속속 각 지방의 회원들이 당도했다. 나로선 이번이 3번째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간간히 눈에 익은 회원들이 보였다. 작년의 쑥스러움을 잊고 반갑게 인사하며 몇몇과는 열싸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만난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가슴 벅찼다. 애뜻한 동료에... 우리에게겐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곳이 나의 소속이며 어렵고 소외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본다.

곧 행사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아직 명찰이 도착하지 않아 막내 미나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이, 공간사랑에는 여성건축사 회원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고 '공간사' 대표 강희성 건축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한국건축사(韓國建築史)에 굵은 획을 긋고 가신 김수근 선생님 시절부터 현재의 공간사 연혁에 대한 브리핑은 강영란 부소장이 진행해주었고 3명의 공간 여직원들이 공간사 견학안내를 맡아주었다.

평일 근무시간대에 100여명의 견학자들이 사무실을 누비고 다니는 건 회사로서는 분명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석 구석 구(舊) 공간사옥의 오밀조밀한 공간을 체험하고 느껴본다는 건 즐거운 경험이었다. 한쪽에 김수근 선생님의 유품이 원래 있던 양식 그대로 잘 모셔져 있었다. 큰 선생님이 없는 지금의 시대에 김수근 선생님의 존재는 한국 건축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내에 예전과는 달리 여직원의 수가 많아진 것이 눈에 띈다. 16여 년 전에 공간사에 지원했다가 낙방했던 에피소드가 잠시 떠올라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회원들이 사내 견학을 하는 사이, 다시 공간사랑에 내려가 보았다. 좀 전에 여성건축사 회원들로 가득 찼던 공간사랑은 텅 빈 공간 안에 빈 의자들만 조용히 즐지어 세워져 있었다. 여기에 앉아있던 그 많은

회원들 중, 누군가는 언젠가 김수근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건축사로 성장하게 될 테고 누군가는 향후 '대한건축사협회'를 대표하는 회장 감도 나오게 되겠지. 그 누군가는...

공간사 견학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일대에서 유명한 '삼청동 수제비' 집으로 이동을 했다. 몹시 허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삼청동의 수제비와 녹두전의 맛은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다. 흡족해진 마음으로 다시 청와대 견학을 위해 춘추관으로 이동하는 사이, 비가 한 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했다. 원래의 일정은 전국을 대표하는 여성건축사 전문인 집단으로서 청와대에 가서 영부인을 접견하는 것이 견학의 목적이었으나 대통령과 중국순방 중이시라 만나 뵈 수 없어 몹시 서운했다. 춘추관에서는 등록자확인 검색대 앞에 즐지어 서서 "황금 철창살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청와대 안으로 입장하게 되었다.

홍보관에서 간단하게 청와대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았는데 하루 예 약방문객이 1,600여명이라고 하니 대통령의 앞마당이 몹시 소란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 관람지는 경복궁의 후원이었던 녹지원(綠芝園)으로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가 있는 곳이란단다.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대통령께서 새벽조깅을 하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니 그럴 듯 했다. 몹시 폼 나는 정원이 아닌가? 커다란 원을 그린 잔디밭에 수백 년 된 잘생긴 소나무들이 멋들어서 식수되어 있었고 녹지원 내



1. 공간사랑 안에서 공간사의 연혁을 설명하는 강영란 부소장
2. 김수근 선생님의 유품
3. 공간사랑에 가득 들어선 여성건축사 회원들

3

에 꽃사슴 8마리를 방목해 키우고 있어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다고 한다. 본관 건물은 대통령이 집무와 외빈접견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하였고 우리나라 건축양식 중 가장 격조 높고 아름답다는 팔작지붕을 올리고 한식 청기와를 이었다. 약 15만장이나 되는 청기와는 일반 도자기를 굽듯이 한 개, 한 개 구워 내어 1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녔다고 가이드가 설명해주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수궁(守宮)터에서 최근에 발견된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地)'라는 표석으로 신라 말의 신승 도선의 기록에 의하면 "인왕산 석벽에 붉은 글씨로 명당임을 표시했다" 하였는데 그 표석이 지난 89년 새 청와대 부지조성과정에서 발견되어 탁본을 떠서 수궁터에 기념비로 세웠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는지 검은 양복에 명찰을 단 하이칼라들이 삼삼오오 지나다니고 초등학교에서 견학 온 컵 스카우트와 걸 스카우트단원들이 줄지어 질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예뻐다. 우아한 샹들리에와 카펫이 인상적인 영빈관(迎賓館)과, 조선시대에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七宮)을 마저 돌아본 것으로 청와대의 견학일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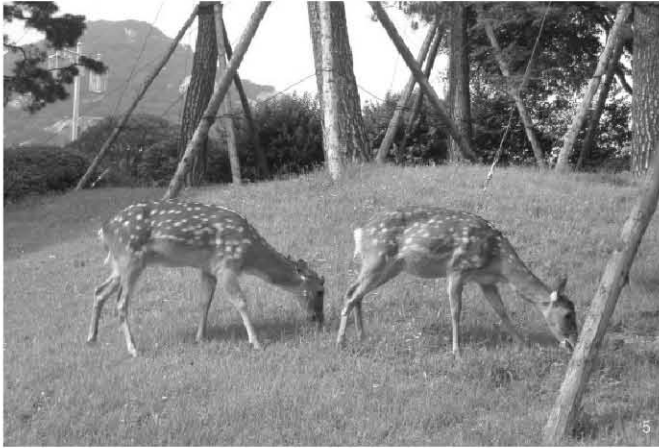
성산대교를 지나가는 길에 오월의 햇살이 한강을 한껏 부풀려 올리는 듯 했다. 간간히 하얀 나비같은 요트와 모터보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날카롭게 번득이는 비늘처럼 보인다. 평소와는 달리 많이 걸

어서인지, 다리가 붓고 노곤했다. 3년째인가? 재작년 대회 때의 시청 앞 광장이 내다보이는 플라자 Hotel, 작년 속초의 바다경치가 근사했던 마린 Hotel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가진 김포의 메이필드 Hotel에 도착했다. 마약 메이필드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으려는 데 한쪽 엘리베이터에서 떠들썩 난리가 났다. 로비에 TV에서나 보던 축구선수 박지성이 나타난 것이다. 다들 "아니 이게 웬일이래"하면서 난리들이다. 그리고 보니 얼핏 "나, 내일 삼암 축구장으로 아들 데리고 경기 보러 간다!"던 남편의 말이 생각났다. 아니 이런 황재가! 국가대표팀이 요르단 전을 대비하여 오늘 메이필드 호텔에서 묵는 모양이었다. "아아~ 내가 좋아하는 설기현 선수도 왔겠지!"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로비를 서성대었다. 총회시간에 촉박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빨리 행사준비를 마쳐야 했는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다. 행사의 진행모습들을 모두 기록해야하는 중책(일명 찍사!)을 맡았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10분 늦게 행사장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나경원 국회의원의 축사가 끝난 뒤였다. 음~! 누군가 사진을 찍었길 바라는 수밖에...

고은영 총무이사의 매끄러운 사회로 무난히 '제14차 전국 여성건축사대회'가 진행되고 밴드 '갑근세'의 흥겨운 무대가 시작되었다. 공연의 마지막에 간삼의 원로 원정수 선생님께서 이재림 회장님께 댄스를 청해 연회장은 삼시간에 즐거운 사교장으로 변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 주셨다. 2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회장님께서



4. 청와대 본관앞에서



5. 청와대의 꽃사슴 6.월궁 7. 칠궁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경청하는 회원들 8. 박지성 선수와

‘건축비전 2020과 디자인 리뉴얼’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고 3부에서는 김향희 위원이 사회를 맡아 정기총회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장 마리아 감사(監査)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부산지역의 이아희 건축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되었다. 만찬시간에는 여성위원회의 회의 때 토의되었던 내용대로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을 좌석으로 찾아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형식에 있어서 좀더 정중하길 바라는 뜻으로 작년보다 개선된 방식이었다. 전 해와 또 달랐던 점은 올해 전국대회에서는 신입회원의 모습이 유난히 많이 띠는 것이다. 어림잡아 20여명 이상 젊고 새로운 얼굴이 많아졌는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총회를 마치고 위원들은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와 피곤에 지쳐 방으로 돌아왔다. 그냥 침구에 몸을 누이기에는 우리의 축제가 너무 아쉬웠다. 누군가 “우리 고생했는데 맥주 한잔하고 자야 하는 거 아닌가요?”하는 솔직한 제안을 했고 부지런한 고은영 선배와 이옥화 건축사가 장을 봐오겠다고 자청을 해주었다. 피곤하니 그냥 자야겠다는 이재림 회장님과 황정복 부회장님께는 “지금 좀 큰 문제가 생겨서요. 다들 모여 있는데 건너오셔야 될 것 같아요.”하고 너스레를 떨었다. 아쉬운 밤에 우리는 맥주한잔과 향긋한 수박한통을 앞에 놓고 MT라도 온 학생들처럼 화장품 이야기며 오늘 로비에서 만난 축구선수 이야기며 다양한 주제로 수다와 웃음꽃을 피웠다. 매년 한 번씩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전국대회는 나로서는 늘 가슴 벅찬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것 같

다. 술이 약한 체질이라 늘 그렇듯이 상습적으로 졸다가 새벽2시가 되어야 자리를 파하고 아쉬운 밤을 정리하기로 했다. 잠결에 같은 방을 썼던 두 명의 위원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무슨 이야기를 또 하는 걸까? 참 서로 만나게 반가운 모양이다.

아침7시, 호텔 측의 모닝콜에 달콤한 잠의 유혹에서 깨어났다. 부랴부랴 화장을 하고 아침식사를 마친 후, 출발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호텔구경이라도 할까하고 산책을 나섰는데 회원들이 또 야단법석이었다. 이번엔 우리의 축구영웅들이 무더기로 로비에 나타난 것이었다. 너도나도 사진 찍고 악수하고 싸인 받고 소녀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호들갑들이었다. “이 사람들, 전문가 집단 맞아? 아줌마들이란!”하며 질세라 날쌔게 달려갔다. 이영표 선수와의 사진 한컷 성공!!! 우하하하...집에 가서 아들 녀석에게 자랑해야지!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오늘의 첫 코스는 상암 경기장으로 설계자인 류춘수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상암에 대한 강연을 하실 예정이었다. 평소, 만나 뵙길 고대했던 건축사이기에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상암에 도착했다. 행사준비를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먼저 출발한 서영주 위원과 오미나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다같이 맘고생을 했다. 다행히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류 선생님께 큰 결례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

“하늘이여, 하늘에 연을!!”

상암 월드컵경기장, 지하 1층 인터뷰실에서는 류 선생님께서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계셨다. 어제 저녁, 경상남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9. 개회를 선언하는 여성 건축사회 이재림 회장님 10. 나경은 국회의원의 축사 11. <건축비전2020과 디자인 리뉴얼>이라는 주제로 강연중인 대한건축사협회 한명수 회장님

오늘 여성 건축사들과의 만남을 위해 새벽 일찍 서울에 도착하였다. 삼성ENG와 턴키공모에 당선되고 상암을 설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재미나게 풀어 주셨는데, 98년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방패연을 보고 컨셉(Concept)을 착안했고 출장 며칠 동안 그린 컨셉설 스케치들을 공개하셨다. 현재의 상암은 당시의 컨셉 그대로 설계, 시공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의 당선확률 속에서 그려낸 디테일(Detail)과 도면들 속에는 당선과 관련 없이 순수한 건축에의 열정을 가진 건축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2001년 11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의 참담함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컸다. 김대중 대통령의 '축사'에 축구협회장, 서울시장, 삼성 ENG.건설사에 대한 감사의 말은 두루 있었지만, 어디에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가령 <해리포터>의 작가 J. K. 롤링이 책을 출판해서 베스트셀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책의 인세가 참 잘 되었다고 출판사에게 갈채를 보냈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건축사는 작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은 설계된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하고 어떤 건설사에서 건설해도 그 결과가 달라져선 안 되므로 건설사는 출판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사의 역량을 무시하는 풍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는 부분과 "상암을 볼 때면 시집보낸 딸과 같은 심정이 됩니다. 스스로 태어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모습으로 상암이 무심히 서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는 그저,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 같구나'는 대목에서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건축사의 그림은 화가의 그림처럼 아름다워야 하지만 건축사의 그림은 수치화된 숫자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

이라는 것은 수시중처(隨時重處)이어야 한다(Fit for Given context of time and place)"는 말씀에는 선생님의 건축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5월, 미국건축사협회(AIA)에서 가장 뛰어난 외국인 건축사에게 수여하는 'Honor AIA'를 받으시는 등 세계가 인정한 건축사이다. 참 건축사다운 건축사와의 만남은 우리를 흥분시켰고 추구선수보다 더한 인기로 행사진행에 무리가 올 정도의 싸인 행렬이 이어졌다. 30여분 가량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기다리다 못한 상암 경기장 측의 관리자가 한마디 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대여되는 장소라서 다음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 끝내고 나가주세요! 저... 근데 저도 싸인 하나 해주시죠!"

상암에서 류 선생님과 기념사진촬영을 마치고 상암 DMC로 이동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버스에 올라 탈 때마다 회원들의 머리수를 계속 체크해야하고 예정일정에 늦지 않도록 시간에 신경써야하고 뒤처지는 회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다. 놀부 부대찌개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견학 코스인 상암DMC 내 <누리꿈 스퀘어>에 도착했다. 광장 앞에서 설계자인 (주)희림 측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건물을 돌아보았다. 7층 접견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하얀색 V자형 기둥이 인상적이었다. 회원들이 건물을 마저 둘러보는 동안, 누리꿈 스퀘어의 광장 앞 'Banana County'에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행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해단식을 준비하였다. 이재림 회장님께서 그간 대회 개최를 위해 고생한 위원들을 일일이 소개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대선배 김화자, 김희순 건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성건축사 전국대회는 우리에게 축제와 같아서 1년



12. 전국 여성건축사대회 중 13. 류춘수 선생님과 14. 삼암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설명하시는 류춘수선생님 15.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싸인공세를 받고있는 류 선생님 16. 여성위원들과 함께(왼쪽끝이 필자)

동안 행사를 고대하고, 흔쾌히 기쁘고 흥겨운 마음으로 전국에서 멋진 그녀들이 모여든다. 매년 참석인원을 90명 내외로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도 공고 하루 만에 참석인원이 마감해버려서 회원들의 원성이 많았다. 그것은 좀더 많은 여성 건축사들이 서로간의 교류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내년부터는 힘이 들더라도 대회의 개최방식을 바꾸어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미처 신청하지 못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많은 선후배 여성건축사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했지만 내년의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돌아오는 길, 이재림 회장님의 폐회사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남자 건축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에 여러가지를 해야 합니다. 애도 키우고 사업도 해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국내 건축경기가 악화된 지 꽤 오래되었고 고질적인 건축계의 운영구조상 많은 건축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최전선에서 있기에 물결의 물결을 넘어야 하지만, 당당하게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역

경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 역경을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은 위대한 자이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동지이며 또한 경쟁자이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도전할 가치와 정복할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란단다.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 건축을 향한 열정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

